



돌아온 김하성·반등하는 이정후·우려 지운 김혜성... 후반기 활약 예고

메이저리그(MLB)를 누비는 김하성(탬파베이 레이스), 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김혜성(LA 다저스)이 19일(한국 시간) 후반기기를 시작한다. 다시 뿔 준비를 마친 이들의 활약에 기대감이 높아진다.

2024시즌이 끝난 뒤 탬파베이와 1+1년, 최대 3100만 달러(약 432억원)에 계약한 김하성은 시즌 출발이 늦었다.

지난해 10월 어깨 수술을 받은 뒤 재활에 매진했던 김하성은 지난 5일 마침내 빅리그에 돌아왔다.

그는 탬파베이 이적 후 첫 경기인 5일 미네소타 트윈스전에서 안타를 치고 도루도 기록했으나 종아리에 경련이 생겨 경기를 끝까지 소화하지 못했다.

이후 3경기 연속 결장한 김하성은 9일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와의 경기에 복귀해 4타수 1안타를 작성했다.

어깨 부상서 회복한 김하성, 전반기 6경기 소화... 홈런 신고 이정후, 전반기 종료 앞두고 안타 몰아쳐... 타격감 회복 김혜성, 치열한 경쟁 속 눈도장 찍어... 타율 0.339 활약

김하성은 날카로운 타격감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10일 디트로이트전에서 멀티히트(한 경기 2안타 이상), 11일 보스턴 레드삭스 상대로 역전 투런포를 쏘아 올리면서 시즌 첫 홈런을 신고했다.

하지만 13, 14일 보스턴전에서는 각각 3타수 무안타, 4타수 무안타로 침묵했다.

김혜성은 전반기 6경기에서 타율 0.227 1홈런 3타점 2득점 1도루 OPS(출루율+장타율) 0.636의 성적을 냈다.

2023년 골드글러브 유틸리티 부문 수상자인 그는 복귀 후 이전과 비교해 최고 수

준의 수비력을 자랑했다. 타격감만 더 올라간다면, 차차 진가를 보여줄 수 있다.

김혜성은 19일 미국 플로리다주 탬파조지 M. 스타인브레너 필드에서 열리는 볼티모어 오리올스와의 경기에서 후반기 시작을 알린다.

올해로 빅리그 2년 차인 이정후는 시즌 초반 연일 맹타를 휘두르며 부상으로 37경기 만에 시즌을 마감했던 지난해의 아쉬움을 씻어냈다. 4월 출전한 26경기에서 타율 0.324 3홈런 16타점으로 맹활약했다.

그러나 5월 들어 주춤하며 시즌 타율 3할이 붕괴됐고, 0.277까지 떨어졌다. 6월에는 극심한 타격 슬럼프를 겪는 등 월간 타율이 0.143에 불과했다. 타순마저 중심 타선에서 하위 타선으로 조정됐다.

흐름 전환이 시급했던 이정후는 전반기 종료를 앞두고 반등 조짐을 보였다. 7월을 내선 10경기 가운데 7경기에서 안타를 뽑아냈고, 타점 6개를 쓸어 담았다.

특히 지난 3일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전에서 단타, 2루타, 3루타를 생산했고, 전반기 마지막 시리즈였던 LA 다저스와의 3연전 첫 경기에서는 4타수 3안타 3타점으로 맹활약했다.

이정후는 92경기에 출장해 타율 0.249 6홈런 40타점 49득점 6도루 OPS 0.720으로 전반기를 마무리했다. 전반기 막판 타격감이 살아나면서 후반기 활약을 예고했다.

다시 바람을 일으킨 이정후는 19일 캐나다 토론토의 로저스 센터에서 토론토 블루제이스를 상대로 후반기의 문을 연다.

올해 1월 지난해 월드시리즈 우승팀인 다저스와 3+2년, 최대 2200만 달러(약 307억원)에 계약한 김혜성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눈도장을 찍으며 살아남았다.

시범경기에서 고전해 마이너리그에서 시즌을 시작한 김혜성은 지난 5월 빅리그에 풀업돼 기회를 잡았다.

김혜성은 5월 출장한 21경기에서 타율 0.422, 6월 이후 16경기에서 타율 0.333으로 맹타를 휘두르며 빅리그 로스터의 한 자리를 지켰다.

그는 플래툰 시스템(상대 투수 좌·우 유형에 따라 좌·우 타자를 기용하는 방식)으로 인해 꾸준히 선발로 나서지 못하고, 좋

은 타격감을 유지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성과가 됐다.

김혜성은 전반기 48경기에서 타율 0.339 2홈런 13타점 17득점 OPS 0.842를 기록,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쳤다.

수비에서는 2루수, 중견수, 유격수로 나서며 내야와 외야를 넘나드는 유틸리티 능력을 뽐냈다.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김혜성의 후반기 첫 경기는 1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다저스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밀워키 브루어스전이다.

마이너리그 트리플A에서 뛰는 고우석(디트로이트 타이거스)과 배지환(피츠버그 파이리츠) 역시 짧은 휴식을 마치고 19일부터 경기에 임하며 빅리그 진입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

/뉴시스

동·호지정 계약 중

3,214세대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되다.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

X1 | FORENA

방문예약시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증정!

PREMIUM6

NO.1 BRAND	총 3,214세대 대단지의 품격	원스톱 도보 학세권	일상을 높인 특화설계	다채로운 커뮤니티	쾌적한 에코라이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자이와 포레나의 합작	복구를 대표할 대규모 브랜드 타운	단지내 어린이집 및 단지 앞 경양초, 운안중 등 안심 학세권	채광과 조망을 고려한 남향 위주 단지 배치, 조망형 유리난간 적용, 세대 전용 창고 등	교보문고 북 큐레이션, 오픈 카페스테이션 전 타석 GDR골프연습장 및 스크린 골프 등	약5.5만㎡ 규모의 단지 조경과 운암산, 종의곡원 등 힐링 자연환경

발코니 무상

중도금 무이자

일부 품목 무상

+

파격적 혜택

총 3,214세대 중 일반분양 1,192세대 [전용 59㎡ / 75㎡ / 84㎡]

062) 607-8338

시흥 운암 3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시흥 GS건설 | (주)한화/건설 | HDC현대산업개발

후반기 시작에 맞춰 돌아온 나성범·김선빈·이의리... KIA 대반격 예고

나성범·김선빈·이의리, 후반기 첫날인 17일 나란히 1군 복귀 KIA, 주축들 부상 이탈에도 전반기 4위... 선두권 추격 시동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천군만마를 얻었다. 한 명, 두 명도 아닌 세 명의 주축 선수들이 동시에 1군에 합류했다. 이들과 함께 KIA는 후반기 대반격을 노린다.

KIA는 지난 17일 외야수 나성범, 내야수 김선빈, 투수 이의리, 김도현, 이호민을 1군 엔트리에 등록했다.

가장 눈에 띄는 이름은 공격의 핵심인 나성범이다.

지난 4월26일 광주 LG 트윈스전 도중 오른쪽 종아리 근육이 손상돼 전력에서 빠졌던 나성범은 전반기가 끝날 때까지 돌아오지 못했다.

올 시즌 26경기 출전에 그쳤고, 타율 0.226 4홈런 16타점 OPS(출루율+장타율) 0.754라는 만족스럽지 못한 성적으로 전반기를 마무리했다.

두 달 넘게 재활에 매달린 나성범은 지난 8일과 9일 NC 다이노스와의 퓨처스(2군)리그 경기에서 실전을 치렀다.

8일에는 2타수 무안타에 그쳤으나 9일 경기에서 홈런을 포함해 멀티히트(한 경기 2안타 이상)를 작성하며 최종 점검을 마쳤다.

올해 두 차례 종아리 부상에 신음한 주전 2루수 김선빈은 5월21일 수원 KT 위즈전 이후 1군에 복귀하지 못했다.

김선빈도 부상 여파로 34경기에서 출전, 많은 경기에 나서지 못했다. 타율 0.292 17타점 11득점 OPS 0.774로 전반기를 마감했다.

부상에서 회복한 김선빈 역시 지난 8일과 9일 NC 2군을 상대로 경기 감각을 깨웠다. 2경기에서 3타수 2안타 1타점 2볼넷의 성적을 냈다. 나성범과 김선빈은 18일 광주 NC전에서 1군 무대 복귀전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 왼쪽 팔꿈치 인대절합 수술(토미존 서저리)을 받은 뒤 오랜 기간 재활에 매달린 이의리는 마침내 팀에 가세해 선발전에 힘을 보탠다.

지난달 22일 두산 베어스와의 퓨처스리그에서 첫 실전 등판에 나선 이의리는 2군에서 3경기에 등판해 8⅓이닝 8피안타 14탈삼진 5볼넷 3실점(1자책)을 기록, 예열을 마쳤다.

KIA는 나성범, 김선빈, 이의리뿐 아니라 김도영, 곽도규, 황동하, 윤도현 등이 부상으로 빠졌음에도 전반기를 4위로 마감하는 '디펜딩 챔피언'의 저력을 보여줬다. 전반기 막판에는 최형우와 아담 윌러, 윤영철까지 부상으로 이탈하는 악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야말로 '잇몸 야구'로 버텼던 KIA는 나성범, 김선빈, 이의리가 나란히 합류하면서 다시 선두권 싸움에 뛰어든다. 다른 부상자들도 하나씩씩 복귀한다면 KIA는 선두권 추격에 탄력을 받는다.

/뉴시스

한국·태국 요트 국가대표팀, 여수 앞바다에서 전지훈련

여수시청 요트팀·실업·학생팀 등 9팀... 국가대표팀과 '비지팜'

전남 여수시는 대한민국과 태국 요트 국가대표팀이 호호요트마리나에서 25일까지 합동 전지훈련을 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훈련에는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여수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요트팀을 비롯해 충남 보령시청, 경북요트협회,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 등 총 9개 팀이 참여할 예정이다.

국가대표팀과의 합동훈련 참여를 희망하는 팀들의 문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향후 참가 팀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여수시의 온화한 기후, 훈련에 적합한 해양환경, 우수한 체육 인프라와 적극적인 스포츠마케팅 등에 따라 여수를 전지훈련지로 최종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요트팀과 태국 요트 국가대표팀 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해외 요트팀 전지훈련 유치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

시는 올해 전지훈련을 계기로 해양 스포츠 네트워크를 더 확대하고, 향후 국내외 전지훈련 팀 유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여수시청 요트팀을 비롯한 실업팀과 학생팀 선수들이 국가대표팀들의 뛰어난 기량을 직접 보고 경험하면서, 여수에서 실력을 한층 끌어올릴 바란다"며 "앞으로도 여수시가 명실상부한 해양 스포츠 전지훈련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뉴시스